다중기포 음파발광 현상을 이용한 메탄의 부분산화 Ni-계 나노촉매 제조

<u>김효원</u>, 강기문, 변기택¹, 곽호영^{*}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, ¹(주) 코캄 (Kwakhy@cau.ac.kr^{*})

Preparation of Ni-based Nano Catalysts for Partial Oxidation of Methane

<u>Hyo-Won Kim</u>, Ki-Moon Kang, Ki-Taek Byun¹, Ho-Young Kwak^{*}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, Chung-Ang University ¹Kokam Inc. (Kwakhy@cau.ac.kr^{*})

1. 서론

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켜 화학 에너지를 바로 전기에너지로 변 화시키기 때문에 에너지의 이용 효율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어 저공해 대체에너지 중에서 가 장 각광받고 있다[1]. 연료전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소는 청정 연료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 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. 수소를 생산하는 원료로는 수소/탄소비가 높을수록 오염물의 발생이 적어지고, 수소의 생산량이 많아지므로 수소/탄소비가 4:1인 천연가스(메탄)를 가장 많 이 사용하고 있다[2-3]. 이러한 수소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촉매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.

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은 크게 4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상용화 되어 있는 메탄 steam reforming 공정, CO₂reforming 공정, 메탄 분해 공정, 부분산화 공정이 있다. 그 중에서 유일하게 메탄 부분산화 공정은 반응에서 요구하는 에너지가 필요 없는 발열반응일 뿐만 아니라, CO₂의 방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.

메탄 부분산화 반응에 사용되는 촉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Ni-계 촉매는 환원 처리 하여 사용하면 귀금속 촉매와 버금가는 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, 가격이 저렴하기 때 문에 Ni-계 촉매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.

최근에는 이러한 촉매를 나노촉매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며, 나노촉매는 기존 촉매에 비해 50배 내지 100배 정도의 높은 촉매능(촉매활성)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촉매가 나노크기로 미세화 되면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이다. 또한 선 택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.

나노촉매를 제조하는 방법에는 sol-gel process, hydrothermal method, microwave method, 그리 고 단순 초음파 조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, 그 중에서 음파 발광현상(sonoluminescence, SL)을 이용한 초음파 합성방법은 짧은 시간에 나노크기의 촉매를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노 입자에 일정하고 균일한 두께로 코팅함으로써 기계적 특성, 활성성분의 고른 분포 및 내마모 특성 피로부식의 저항성 등이 증가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.

한편, 특정한 범위 내의 진폭을 갖는 초음파를 조사하면 음파발광 현상(SL)이 일어난다. 이는 기포의 급격한 수축으로 인해 수축시 기포내 가스가 고온, 고압이 되어 빛이 발생하는 현상이다[4]. 초음파장에서 진동하는 단일 기포에 대한 수력학적인 해석에 따르면 기포 붕괴 직

전 기포벽의 가속도가 10¹² m/s를 초과하면서[5] 기포 내 가스의 온도는 10,000K~30,000K, 압력 은 10,000기압에 이르게 되며[6] 기포벽 외부의 열경계층인 반응 영역의 경우 온도는 5000K, 압 력은 500기압까지 올라간다. 이때 단일기포 음파발광의 경우보다 고강도의 초음파를 액체내 에 조사하면 동시에 수많은(10000~50000개) 기포들이 생성하여 초음파에 동기화되어 수축할 경우 발광하게 된다. 이렇게 여러 기포에서 음파발광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다중기포 음파발 광(multibubble sonoluminescence, MBSL)이라고 하며, 이 현상을 이용하여 나노물질을 제조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[7-10].

지금까지 Ni-계 나노촉매를 제조하는 방법은 단순히 Ni을 침적시키거나 나노 크기의 지지체 표면상에 코팅될 때 나노재료가 균일하게 코팅되지 않고, 나노재료의 두께를 조절하기 힘든 단 점이 있었다.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MBSL을 이용하여 나노 재료에 일정하고 균일한 두께로 Ni 을 코팅시켜 Ni/Al₂O₃를 제조하였다.

2. 재료 및 실험방법

2.1 촉매 합성

본 연구에 사용된 용매는 증류수, 지지체는 Al₂O₃(Aldrich, average size of 20~40 nm in diameter), 을 사용하였으며, 전구물질로는 nickel nitrate hexahydrate(Ni(NO₃)₂·6H₂O, 97.0%, Junsei)를 사용 하였다.

Ni-based 나노촉매는다중기포 초음파 발광(MBSL) 조건하에서 초음파 조사에 의해서 합성되 었으며, 다중기포 초음파 발광 조건을 구현하기 위한 실험 장치는 5 mm 직경의 horn tip과 원통 형 시험관을 포함한 초음파발생기(Misonix XL2020, USA)를 사용하였다. 그리고 티타늄 tip을 원형 석영관 안으로 삽입하였으며, 이때 주파수는 20 kHz이고, 파워는 220 W로 하였다. 순환식 항온조를 이용하여 시험 수조 내의 온도를 25 ℃로 하고, 석영관 내부 시료는 아르곤 가스를 이 용하여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였다.

Ni/Al₂O₃는 2 mmol Ni(NO₃)₂·6H₂O, 4 mmol NaOH(99.99%, Aldrich), 6 mmol Al₂O₃을 증류수 12 ml에 넣고 MBSL 조건하에서 20분 동안 반응시켜 제조 하였으며, 제조된 Ni/Al₂O₃ 촉매는 초고 속 원심분리기 (Hanil, HM-150IV, Korea)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. 그 후 증류수로 여러 차례 세척한 후 오븐에 넣어 105℃로 12시간 동안 완전히 건조하였다. 건조된 Ni/Al₂O₃ 촉매를 전기 로(A JEON HEATING INDUSTRIAL, AJ-MB3, Korea) 에서 500℃~900℃로 4시간 동안 소성 하 여 Ni/Al₂O₃를 코팅하였다.

2.2 촉매 특성 분석

제조된 촉매는 High Resolution X-ray diffractometer (Bruker D8 DISCOVER, λ=1.5418 Å, Germany)를 이용하여 2θ의 범위가 10~80°이고, 40 kV와 40 mA에서 촉매의 결정성을 확인 하였으며, High Resolution-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(JEOL, JEM-3010, 300 kV)는 나노촉매의 입자 크기와 구조를 확인 할 수 있었다.

3. 결과 및 고찰

3.1 Ni 침적량에 따른 Ni/Al₂O₃의 특성

Fig. 1는 MBSL 조건에서 질산니켈 수용액을 이용하여 제조된 Ni 촉매의 침적량이 10~20 wt%

화학공학의 이론과 응용 제14권 제2호 2008년

인 Ni/Al₂O₃의 XRD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. Fig. 1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NiO의 (111), (200), (220), (311), (222)면에 상응하는 2*θ*=37.04°, 43.30°, 62.78°, 75.45°와 79.95°로 거의 같음을 알 수 있고, NiAl₂O₄의 (111), (220), (311), (400), (511), (440), (553)면에 상응하는 2*θ*=19.09°, 31.43°, 37.04°, 45.04°, 59.72°, 65.59°, 78.41°인 입방정구조(JCPDS #02-1216, JCPDS #10-0339)임을 나타 내며 Ni 함량이 증가할수록 NiO와 NiAl₂O₄의 피크 또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.

Fig. 2은 소성온도가 700~900℃인 20 wt% Ni/Al₂O₃의 XRD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. Fig. 2을 보면 소성온도가 700℃일 때는 주 피크가 NiO이고, NiAl₂O₄ 피크는 아주 작지만, 900℃에서는 NiO의 피크가 사라지고 NiAl₂O₄의 피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. 이는 소성온도를 증가시키면 Ni/Al₂O₃의 구조가 spinel 구조인 NiAl₂O₄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



Fig. 1 XRD pattern for Ni/Al₂O₃ nanopowder depend on Ni-load ing at calcinations temperature 700°C (a) 10 wt% Ni/Al₂O₃, (b) 20 wt% Ni/Al₂O₃.



Fig. 2 XRD pattern for 20 wt% Ni/Al₂O₃ nanop -owder depend on calcination temperature (a) 700° C, (b) 900° C.





Fig. 3 HR-TEM images of 20 wt% nickel coated Al_2O_3 nanopowder (a) at calcination temperature 700 °C (b) at calcination temperature 900 °C.

Fig. 3의 (a), (b)는 MBSL 조건에서 만들어진 Ni이 Al₂O₃에 코팅된 20 wt% Ni/Al₂O₃의 HR-TEM 을 보여주고 있다. MBSL 조건에서는 Ni이 금속산화물 표면에 균일하게 코팅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, (a)는 700℃에서 소성한 20 wt% Ni/Al₂O₃이고 코팅 두께는 약3.6 nm로 나타났 다. (b)는 900℃에서 소성한 20 wt% Ni/Al₂O₃이며 이 때 코팅 두께는 약3.9 nm로 Fig. 3 (a)의 70 0℃에서 소성한 것보다 더 두껍게 나타났다. 이는 소성온도가 900℃로 증가하면서 Al₂O₃와 NiO 가 NiAl2O4로 결합하면서 코팅 두께가 두껍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.

4. 결 론

부분산화 Ni-계 나노촉매에서 Ni 침적량과 소성온도에 따른 촉매 특성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었다.

1) Ni의 침적량이 증가할수록 NiO와 NiAl₂O₄의 결정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.

2) 소성온도를 증가 시키면 Ni/Al₂O₃의 구조가 spinel 구조인 NiAl₂O₄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. 3) MBSL 조건에서 Ni이 금속산화물에 3.6 nm로 균일하게 코팅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, 코팅된 Ni이 소성온도가 증가함으로써 NiO와 Al₂O₃와 결합으로 인해 NiAl₂O₄가 형성되어 코팅 두께 가 3.9 nm로 두꺼워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

후기

본 연구는 미국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(EPRI)와 서울시 집적과제(10543)의 지원에 의 한 것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참고문헌

- 1. Lee, T. H., and Y. H. Moon, Trans. of the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, 15, 244 (2004).
- Rivas, M. E., J. L. G. Fierro, R. Guil-Lopez, M. A. Pena, V. La Parola, and M. R. Goldwasser, *Catalysis Today*, 133-135, 367 (2008).
- 3. Takenaka, S., Y. Tomikubo, E. kato, and K. Otsuka, Fuel, 83, 47 (2004).
- 4. Kamath, J., A. Prosperetti, and F. N. Egofopoulos, *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*, **94**, 248 (2993).
- 5. Kwak, H. Y., and J. H. Na, Physical Review Letters, 77, 4454 (1996).
- 6. Kwak, H. Y., and J. H. Na, Journal of the Physical Society of Japan, 66, 3074 (1997).
- 7. Byun, K. T., K. W. Seo, L. W. Shim, and H. Y. Kwak, Chemical Engineering Journal, 135, 168 (2008).
- 8. Lee, S. S., K. W. Seo, S H. Yoon, L. W. Shim, K. T. Byun, and H. Y. Kwak, *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*, 26, 1579 (2005).
- 9. Lee, S. S., K. T. Byun, J. P. Park, S. K. Kim, H. Y. Kwak, and L. W. Shim, *Dalton Transactions*, 4182 (2007).
- 10. Lee, S. S., K. T. Byun, J. P. Park, S. K. Kim, J. C. Lee, S. K. Chang, H. Y. Kwak, and L. W. Shim, *Chemical Engineering Journal*, **139**, 194 (2008).